



12면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 4차 발굴조사

전주매일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음 6월 4일) 제281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년 2길 6번지

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 · 노력 '결실'

정부 계절관리제 종합평가
국민투표 결과 전국 1위

배출원 특성 고려
맞춤형 특화대책 추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사업 등으로
작년 12월부터 4개월간
초미세먼지 상황 개선돼



'고위직 공무원들의 청렴은 필수' 있다.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직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4급이상 고위공직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하고

미세먼지를 줄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도의 정책과 노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도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는 1위로 평가받았으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에 대한 정부 종합평가 및 국민투표 결과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충실성, ▲성과의 우수성, ▲홍보·소통노력, ▲단체장의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우수저감시례를 선발했다.

이런 정부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시·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충실성, ▲성과의 우수성, ▲홍보·소통노력, ▲단체장의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우수저감시례를 선발했다.

이달부터, 서면평가를 통해 선발된 시·도별 우수저감시례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 우수한 시·도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가장 우수한 저감대책을 시행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시·군과 함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평소보다

강화된 13개 과제를 적극 시행했다. 먼저, 전북도는 타 시·도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첫째, 생물성연소 저감 등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환경공단 및 14개 시·군과 함께 생물성연소저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영농·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홍보 불법소각 단속·계도활동과 함께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하는 등을 활동을 전개, 70만톤의 영농부산물물을 재활용 또는 수거 처리했고, 283건의 계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

둘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당시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40년이 소요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기간을 6년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로 2021년에는 3만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비 748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도내 주요 도로에서 운행중인 1만8,704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 기준을 초과한 47대를 개선조치 했다.

셋째,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8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및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 μ g/m³-45 μ g/m³)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순위 분석결과, 전북도의 농도순위는 2015년에는 35 μ g/m³으로 1위였으나, 2018년에는 25 μ g/m³으로 2위로, 현재는 5위로 농도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기저농도(TSP)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내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9 μ g/m³에서 25.5 μ g/m³로 그 농도가 33%대폭 개선됐다.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전국2위, 올해에는 1위의 평가를 받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북도가 '최우수 시·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릴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가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서면평가를 통해 선발된 시·도별 우수저감시례는 올해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 우수한 시·도를 선정했다.

전북도는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 가장 우수한 저감대책을 시행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시·군과 함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평소보다

강화된 13개 과제를 적극 시행했다. 먼저, 전북도는 타 시·도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인식하고,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첫째, 생물성연소 저감 등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지난해 1월 전북지방환경청, 서부지방산림청, 환경공단 및 14개 시·군과 함께 생물성연소저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영농·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홍보 불법소각 단속·계도활동과 함께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지원하는 등을 활동을 전개, 70만톤의 영농부산물물을 재활용 또는 수거 처리했고, 283건의 계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

둘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당시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40년이 소요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기간을 6년으로 감축해 2024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로 2021년에는 3만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비 748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도내 주요 도로에서 운행중인 1만8,704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 기준을 초과한 47대를 개선조치 했다.

셋째,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8

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및 개선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계절관리제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도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에 비해 7%(27 μ g/m³-45 μ g/m³)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순위 분석결과, 전북도의 농도순위는 2015년에는 35 μ g/m³으로 1위였으나, 2018년에는 25 μ g/m³으로 2위로, 현재는 5위로 농도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계절관리제의 효과가 기저농도(TSP) 감소로 이어지면서 도내 대기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전북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행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9 μ g/m³에서 25.5 μ g/m³로 그 농도가 33%대폭 개선됐다. 2019년 환경부 시·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전국2위, 올해에는 1위의 평가를 받는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쾌적한

'비빔밥 고장' 전주 '비빔면 고장' 예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천년누리와 지역 쌀·밀 활용 '전주비빔면' 출시
천년누리 전주시청점 등서 구매 가능



맛의 고장이자 비빔밥의 고장 전주에서 전주비빔면에 이어 전주비빔면이 산을 보인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은 지역 농업회사법인인 (주)천년누리(대표 장운영)와 함께 전주의 쌀과 밀을 활용해 만든 '전주비빔면'을 출시한다고 (관련기사 4면) 전주비빔면의 면은 전주의 밀가루를 활용해 식이섬유의 영양성분을 강화했으며, 쌀가루를 첨가해 면의 쫄쫄한 식감을 살린 건강식으로 개발했다. 비빔면에 채소와 육류 등 식재료를 조합해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시장 제품과 대비해 소스의 양을 20% 늘렸다.

연구원은 특히 비빔소스에 대해 제조·가공 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유래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비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비빔면은 천년누리 전주시청점과 전주한옥마을점, 전주역점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달 넷째 주부터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전국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 전주 비빔면 활용 필링 제조를 통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소재화 연구를 통해 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소부당과 함께 전주 비빔면이 떡

을 출시했다. 전주 비빔면이 떡으로 현재까지 1억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3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달 1일에는 전주 도화관 작

목반과 전주 복숭아 공급 계약도 맺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연구원은 지역농가와 기업 간 원료의 생산, 수요량 등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 소재화 연구를 이어가 지역 농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농산자원을 활용한 특색상품 개발은 미래산업에 견줄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며 "특히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의 탁월한 R&D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농생명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년누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히 제품인 전주비빔면은 국내산 밀로 만든 반죽에 돼지고기, 콩나물, 표고버섯, 고추장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넣어 만든 주부라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전국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 전주 비빔면 활용 필링 제조를 통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소재화 연구를 통해 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소부당과 함께 전주 비빔면이 떡

을 출시했다. 전주 비빔면이 떡으로 현재까지 1억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3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달 1일에는 전주 도화관 작

목반과 전주 복숭아 공급 계약도 맺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연구원은 지역농가와 기업 간 원료의 생산, 수요량 등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 소재화 연구를 이어가 지역 농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농산자원을 활용한 특색상품 개발은 미래산업에 견줄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며 "특히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의 탁월한 R&D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농생명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년누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히 제품인 전주비빔면은 국내산 밀로 만든 반죽에 돼지고기, 콩나물, 표고버섯, 고추장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넣어 만든 주부라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전국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 전주 비빔면 활용 필링 제조를 통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소재화 연구를 통해 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소부당과 함께 전주 비빔면이 떡

을 출시했다. 전주 비빔면이 떡으로 현재까지 1억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3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달 1일에는 전주 도화관 작

목반과 전주 복숭아 공급 계약도 맺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연구원은 지역농가와 기업 간 원료의 생산, 수요량 등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 소재화 연구를 이어가 지역 농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농산자원을 활용한 특색상품 개발은 미래산업에 견줄 만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영역"이라며 "특히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들의 탁월한 R&D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농생명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년누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히 제품인 전주비빔면은 국내산 밀로 만든 반죽에 돼지고기, 콩나물, 표고버섯, 고추장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넣어 만든 주부라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전국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1월 전주 비빔면 활용 필링 제조를 통한 전주 농산자원의 가공소재화 연구를 통해 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인 (주)소부당과 함께 전주 비빔면이 떡

을 출시했다. 전주 비빔면이 떡으로 현재까지 1억원가량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지난 3월과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달 1일에는 전주 도화관 작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정읍시 산외면 여우치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호남평야의 젖줄, 동진강!
강이 품은 이평 만석보는 혁명과 올바른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 드디어 1894년 동학동민혁명이라는 열매가 되고

3.1 독립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불씨로 이어집니다.

혁명의 강
역사의 강
생명의 강
자랑스러운 동진강의 시원(始原) 정읍!

정읍시 산외면 여우치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줄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정읍의 자랑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